

나주시 산포면, 어버이날 맞아 민관 합동 위문 나서

산포면지사협, '꽃처럼 피어나는 효' 나눔 실천



어버이날을 맞아 직접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 산포면이 어버이날을 맞아 민관이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위문품을 전달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2일 산포면에 따르면 산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난 8일 홀몸 어르신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위문 및 카네이션 꽃바구니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5세대와 마을 경로당 25개소를 민관이 함께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감사와 공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꽃처럼 피어나는 효(孝)', 꽃바구니 나눔' 특화사업을 통해 위원들이

직접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제작하고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어르신들과 안부를 나누며 생활 불편 사항도 함께 살피는 등 정서적 돌봄 활동도 병행했다.

서상준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포면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어르신 돌봄과 나눔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냥드림사업' 추진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청년 작가 전시 개최

담양군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을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냥드림사업'은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에게 복잡한 서류 없이도 긴급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밀착형 복지서비스다. 기존 복지제도가 자격요건 확인 절차로 인해 실제 지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선지원 후 행정' 원칙을 적용, 도움을 요청하는 군민에게 현장에서 즉시 물품을 전달해 복지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2회 이상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거쳐야 하고, 연간 이용 횟수는 3회로 한정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에서 청년 작가 전시 지원 프로그램인 '처음 쓰는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존의 풍경, 동행의 감정'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5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 제2·3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청년 작가들이 삶과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로, 공존의 감정을 자신만의 회화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제2전시실에서는 송영학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느낀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농번기 돌봄 지원으로 농촌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함께 놀이와 체험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송광민)은 농번기를 맞아 농업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과 놀이 등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올해 사업 대상인 법성어린이집에서 만 2세부터 만10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돌봄 서비스(운영시간: 08:00 ~ 18:00)를 제공하고 있다.

농번기 돌봄 프로그램으로는 놀이활동, 독서지도, 생태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아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참여한 아이들은 "주말에도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어 즐겁다"며 활기찬 주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영광군은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며 농촌지역의 보육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모들도 걱정 없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주말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놀이·독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즐거운 주말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농촌 보육 환경 개선과 돌봄 체계 구축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소득 하위 70% 군민에 1인당 25만 원씩...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장성군이 이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군민으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1차 지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 주민,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면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 등을 이용하면 되고, 종이형 장성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에 신청·수령한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급기간 첫 주인 18~22일에 신청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출생연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 포스터

/장성군 제공

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8일 1·6번, 19일 2·7번, 20일 3·8번, 21일 4·9번, 22일에는 5·0번이 신청한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장성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희·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쓸 수 없

다. 주유소는 매출과 관계없이 결제할 수 있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을 중점 홍보하고,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깡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